

북페스티벌의 문화적 가치 연구

정대근*, 강혜라**, 홍소람***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페스티벌의 역사 및 정책 분석, 사례조사를 통하여 북페스티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북페스티벌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북페스티벌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첫째, 역사적 공간을 기반에 둔 문화재생이다. 둘째, 북페스티벌의 참여를 통한 지역 내 부구성원의 결속 강화이다. 셋째, 가족 및 지역을 중심으로 독서생활습관을 내재화시킴으로써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페스티벌의 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페스티벌은 독서문화 확산 및 독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둘째, 지적 체계의 개방적이고 격의 없는 공유를 보편화시켜 공동체의 성숙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주제어] 문화, 축제, 북페스티벌, 문화적 가치, 독서문화, 독서문화 활성화

-
- * 정대근(E-mail: jdk1319@jnu.ac.kr)
학위취득대학: 전남대학교
현직: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 강혜라(E-mail: gang921229@naver.com)
학위취득대학: 전남대학교
현직: 전남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 *** 홍소람(E-mail: tower_sun@hanmail.net)
학위취득대학: 전남대학교
현직: 전남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논문접수일 : 2016년 10월 03일, 논문수정일 : 2016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25일

A Study on the Cultural Value of the Book Festival

Jeong, Dae-keun, Gang, Hye-ra, Hong, So-ram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cultural value of the book festival. We redefine the concept of the book festival by analyzing its history and policies as well as some examples. From these examples we derive various implications, including cultural reproduction based on the historical space; strengthening community solidarity through engagement with the book festival; and diffusion of the reading culture by internalizing reading habits based on the family and community. These implications connote the essential cultural value of the book festival. The substantive value of the book festival lies in its strengthening of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iffusion and vitalization of the reading culture. The conceptual value of the book festival derives from its support for an increasing sense of community and of social integration by generalizing a liberal, sharing way of thinking.

[keywords] *Culture, Festival, Book Festival, Cultural Value, Reading Culture, Vitalizations of Reading Cultur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5년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이를 계기로 지역축제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문화관광체육부가 밝힌 지역축제 개최 계획에 따르면 2014년 555개였던 지역축제가 2016년에는 693개로 증가하였다.¹⁾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책과 관련한 다양한 축제도 나타나게 되었다.

책과 축제를 하나로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북페스티벌은 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독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단합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점차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국의 북페스티벌은 비영리단체나 예술재단 혹은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국내의 경우 독서문화 활성화라는 대명제 하에서 법안 및 정책이 정비되면서, 도서관 현장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던 북페스티벌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성장, 발전하였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독서진흥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각급 도서관 및 민간 차원의 사회적 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장되었으며, 2007년 독서문화진흥법이 독자적으로 입법화되고 독서 활성화의 측면에서 독서의 달 행사 등에 의무성을 부여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책변화를 통해 짧은 기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북페스티벌은 문화적·사회적 차원의 효과성의 검증은 통한 진행보다는 관례적인 행사로 변모하였다.

1) 2016년의 경우 지역축제의 적용대상이 기존 3일 이상에서 2일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관례화되었던 행사는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의 수립과 함께 점차 문화적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학술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페스티벌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며, 북페스티벌에 대한 개념조차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페스티벌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여느 축제와 달리 차별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 공동체성의 회복과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의 역사 및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적 북페스티벌의 개념을 문화적 측면에서 재정립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북페스티벌의 사례조사를 통해 북페스티벌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문화의 한 양식으로 축제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문화와 축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문화가 민족성 및 지역성 등과 연계되어 표출되는 고유적 특성을 중심으로 문화와 축제의 관계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축제는 문화가 가지는 광범위한 특성을 전제로 하여 문화를 표출하는 표현수단으로 보았다(남덕현 2004; 최문규 2004; 윤선자 2008). 이러한 연구에서 축제는 이론적 및 사례적 측면에서, 문화가 가지는 광범위한 특성을 전제로 하여 문화를 표출하는 표현수단으로 적용되는 바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역사회가 가지는 문화

콘텐츠와 지역 활성화의 측면에서 축제를 접근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에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실용적 근간에서 연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왔다(류정아 2003).

북페스티벌의 경우 국내에서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현황 고찰이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독서의 활성화 및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북페스티벌이 언급되었다(이만수 2008; 조찬식 2013). 본격적으로 북페스티벌이 화두에 올라온 것은 2014년 이후였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 대두되었던 독서진흥 관련 법안 및 정책이 정비되면서 관련 행사들이 적극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북페스티벌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중점적인 현황 파악과 사례 연구를 실시했던 선행연구들이 주로 나타난다(안찬수 2014; 조찬식 2016).

해외의 경우 북페스티벌에 관한 연구는 페스티벌 자체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연구가 주축을 이룬다. 창작자 중심의 문학적 생산 행위 자체에 중점을 맞추었던 과거 시대의 문학 카니발, 혹은 개인적인 행위로 취급되어 왔던 독서 행위의 초점을 관객과 그러한 관객의 적극적인 소통 행위로 확장시키는 관객 중점적인 차원에서 북페스티벌을 조망하는 사례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Ommundsen 2009; Stewart 2009; Johanson and Freeman 2012; Weber 2014; Driscoll 2015). 일부 북페스티벌의 의미에 관한 이론 분석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예술로서 문학이 갖게 되는 작가와 독자의 관계에 관한 재해석을 중점적으로 시도하였다(Meehan 2005).

따라서 ‘북페스티벌’이 고유하게 문화 체계 속에 포섭된 양태를 이론적 전제 하에 분석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2000년대 후반부터에야

접근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북페스티벌을 독자적인 연구 주제로 삼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이후로 이에 관한 체계적 접근이 가지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문화와 축제

‘문화’는 보편적이다. 이는 ‘문화’가 그만큼 광범위하며 동시에 본질적인 개념임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규정된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는 문화의 개념으로 통용되는 최소 3가지의 범주가 함의되어 있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자연과 상충하는 인위적인 것으로서의 개념이다. 이러한 대비적 개념은 문화를 나타내는 culture의 어원이 cultivate, 즉 ‘경작하다’는 데에서 일반적으로 그 근거를 찾는다. 자연적 생산물을 채집하는 행위와, 이를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생산하기 시작하는 데에서 문화의 근거를 찾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위, 즉 인간의 목적의식에 의해 생산된 ‘문화’는 결국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명(civilization)’으로써의 방향성을 지닌다.

둘째, 문화는 단일 주체 단위가 아닌 사회 단위에서의 생성물이다. 즉 문화는 ‘공유되거나 함의되는’ 것이다. 문화가 가진 주된 특징들은 문화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후천적이기

때문에 학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대 간에 계승되며 축적될 수 있다는 본질에서 기인한다(박진규·정철상 2005, 22-23). 따라서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이라는 점에서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민족적 개념을 띠고 있을 때는 지리적/전통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특정한 집단으로서의 사회의 개념과 유사한 범주를 공유하기도 한다.

셋째, 문화는 개인 단위의 협의에서는 사람을 어떠한 사회 안에 범주화시키는 특징이 될 수 있다. 또한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문화는 인위적인 노력을 전제한다. 광의의 의미에서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습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기호나 지적 수준, 교양을 나타내는 표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인위적인 노력은 의식주의 영역보다는 그 자체를 향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범주는 문화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다양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문화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역설 또한 포함한다.

이 세 가지 범주는 문화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다양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문화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역설 또한 포함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해석은 우리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믿어왔던 이성이라는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호이징가(Huizinga 1955)는 문화를 ‘놀이’라는 개념을 통해 총체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놀이는 단순한 문화 ‘속’의 요소에서 나아가, 문화를 해석할 수 있

는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한다. 놀이의 너머에 존재하는 ‘뜻’, 놀이 행위에서 추구되는 ‘재미(aardigheid)’는 놀이를 이성적 인간을 뛰어넘은 동물세계와 비이성적인 삶의 영역 전반까지 포괄하는 “총체성”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놀이라는 총체성을 단순히 향유하지 않고, 즉 ‘놀이’만 않고, 거기에서 나아가 ‘우리가 논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인간의 가능성을 이성적 존재에서 더욱 확장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하나의 규칙과 체계를 공유하면서도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의 근간은 자연적인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재미와 무목적성을 토대로 한 “놀이의 한 형태”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놀이는 하나의 ‘장’으로서 탈일상성(脫日常性)을 지닌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축제의 본질과 상통하는 것이다. 즉 ‘놀이’라는 거대한 본질 안에서 문화와 축제는 동일한 뿌리를 지닌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놀이이며, 그 안의 체계와 형태 속에 수많은 ‘놀이’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성’이라는 인간 본연적 특성과 더불어 어떠한 기호적·범주적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는 ‘현상’이자 ‘목적’으로서 이중적인 성질을 지니게 된다. 문화는 특정한 생활양식이 가진 특징의 집합을 규정하기도 하고, 소속감과 지향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은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제와도 상통한다(남덕현 2004, 5-6). 다시 말해 축제는 문화의 본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양태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축제는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합의된 체계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중심의 체계에서 탈피하여 개별적 주체로 나아가는 지역적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즉 축제는 ‘행해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보편적·개별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의 표현양식이자 나아가 문화의 지향점을 실현할 수 있는 ‘소망’으로 정의된다.

2. 북페스티벌

1) 북페스티벌의 개념

북페스티벌(book festival)은 ‘책’이라는 매개를 바탕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축제이다. 대개 북페스티벌(book festival)은 대중독서운동의 진흥과 확장, 지역사회의 문화적 동질감 정립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책’을 매개로 하여 지역사회 시민과 대중을 참여시키는 축제로 정의된다(조찬식 2016).

북페스티벌은 흔히 해외에서 라이터스 페스티벌(writers' festival), 리터러리 페스티벌(literary festival) 등으로 사용되며(안찬수 2014, 16), 책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북페어(book fair) 등의 행사 또한 같은 범주에서 묶이기도 한다. 그러나 북페어는 주로 출판사를 중심으로 하여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는 전문적·상업적인 교류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가진다(Moeran 2010, 141). 학교나 도서관 같은 기관이나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북페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에도 책을 주체로 한 행사라기보다 출판사 및 서점, 혹은 개인 단위에서 책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형태가 주가 된다. 따라서 일탈성을 기저에 두고 전도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로서의 북페스티벌과는 궤를 달리한다.

한편, 라이터스 페스티벌과 리터러리 페스티벌은 동의어로서 혼용된다. 라이터스/리터러리 페스티벌은 독서를 개인적인 행위가 아닌 집합적·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독서의 질을 향상시키고, 참여하는 청중의 독서 경험을 공유 시킴으로써 그 범주를 확장하는 이벤트로 정의된다(Johanson and Freeman 2012, 303). 라

이터스/리터러리 페스티벌이 가진 근본적인 방향성은 산업화되고 대량생산된 책을 통해서도 실제화되지 않는 내용적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와의 직접적 소통으로 상호공유의 기회를 마련함에 있다(Meehan 2005, 2-3). 이러한 관점에서 라이터스/리터러리 페스티벌의 ‘책’은 사람들이 공유할 최소한의 내용적 매개물이며, 페스티벌에서는 저자와의 혹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심을 이룬다.

라이터스/리터러리 페스티벌이 개인적 경험에서 사회적 경험으로 나아가는 독서의 경향성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라면, 북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 대상을 보다 다원적으로 두는 경향이 있다. 페스티벌의 호칭을 ‘저자’와 ‘문학’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 ‘책’이라는 매체적 측면으로 표기함으로써 본래 가졌던 지역문화적 특성보다 총체적, 보편적, 확장적인 측면을 가진다. 여기에는 북페어(book fair) 등이 가지는 출판적·상업적인 속성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아우르는 체험적 속성, 기존의 라이터스/리터러리 페스티벌이 표방하는 책의 내용적 상호소통에 관한 측면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북페스티벌이 가진 이러한 총체적 특성은 라이터스/리터러리 페스티벌이 가진 독서 행위의 확장이라는 의의에서 본질적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이러한 독서 행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축제의 현대적 경향성이 가진 가치의 회복 및 연대감 창출의 효과 또한 가지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는 사실상 혼용된다. 그러나 한국의 북페스티벌, 책축제, 책모꼬지 등의 경우, 라이터스/리터러리 페스티벌이 가진 주된 특징 중 하나인 지역문화와 개별 작가 혹은 작품에 대한 내용적 경향보다 ‘책’이라는 매체의 보편성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페스

티벌(book festival)'이라는 표현이 개념상 적합하다.

2) 북페스티벌의 역사

축제의 어원적 근간에는 원시성과 자연성을 향한 종교적 형태의 희구가 녹아있다. 이런 특징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축제 형태가 '카니발(carnival)'이다. 카니발이 띤 이러한 '자연종교적 성향'은 중세시대 기독교 신앙 내에서 탄압받다가, 그 유용성으로 인해 기독교적 체계 안에 합법적으로 포섭되었다(윤선자 2008, 17-19).

기독교적 체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카니발이 가진 세속성과 일탈성은 계속 강화되어왔다. 축제의 성질이 원시적 숭배에서 세속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책과 문학이라는 화두가 대두되었다. 특히 인쇄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15세기를 전후해서, 보다 직접적인 상업성·거래성의 성격을 띤 북페어가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북페어인 프랑크푸르트 북페어는 12-13세기부터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1462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인쇄업자들과 출판업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자리 잡았다(Weidhaas 2007, 11-25).

이와 동일한 시기, 유희적 성질을 띤 문학 축제는 작가들을 위시로 한 카니발의 형태로 나타났다. 15세기 들어 도시의 카니발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형태의 신도회가 출현하여 축제를 다양화하였는데, 뤼(Puy)라고 불리우는 문학협회나 자선적 목적에서 시작된 수사학 협회들(les Chambres de Rhétorique) 등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축제의 다양한 문학적 활동을 주재하면서 축제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로 시 콩쿠르를 개최하거나, 직접 만든 작품을 낭송하고, 기독교 주제 연극을 상연하는 등 도시 카니발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언어게임(jeu de langage)'과 '상상게임(jeu de l'imaginaire)'등의 오락을 통해 문학적 상상력과 참가자의 풍자적 능력, 재치를 향유하며 축제의 문학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윤선자 2008, 213-216). 문학 카니발의 해학적·풍자적 특성은 카니발의 정치적·종교적 목적성에 수단화되기 적합한 것이었고, 이후 종교개혁 및 근대 자본주의 등이 도래함에 따라 전통적 의미에서의 카니발은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윤선자 2008, 17-19).

축제는 '카니발'에서 '페스티벌'로, 그리고 이어서 '스펙터클'에서 '퍼포먼스'로 다양하게 그 명칭을 바꿔가면서 현대사회에서 각각의 맥락에 적응하며 연희되고 있다(류정아 2013, x xi). 카니발에서 문학의 역할은 주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작가를 중심으로 진행 및 향유되었다. 그러나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책이 보편화되면서 그 향유 계층과 범위 또한 확대되었고, 그 결과 현대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책, 그리고 문학을 주제로 한 축제는 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세계 최초의 리터러리 페스티벌은 1949년 영국에서 시작한 첼튼엄 리터러리 페스티벌(Cheltenham Literary Festival)로 뽑힌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애들레이드 작가 주간(Adelaide Writers' Week)은 1960년에 시작되어 1970~80년대에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고, 다른 페스티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Cheltenham Literary Festival, 2016/08/26.; Ommundsen 2009, 20). 이 두 가지 라이터스/리터러리 페스티벌은 다양한 저자를 초청하여 이들과 독자를 만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다양한 독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폭넓은 행사를 주최하며, 그 외의 활동은 부수적인 차원이다. 라이터스/리터러리 페스티벌은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되었으

며, 현재의 많은 라이터스/리터러리 페스티벌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북페스티벌은 북페어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도서전시회의 효시로는 경기도 학무국이 1947년 10월 주최한 교육전람회를 꼽는다(서울국제도서전, 2016/08/26, <http://2016.sibf.or.kr/sibf2016/bookfair-history/>). 단독 행사로 최초의 ‘도서전’은 상기 행사를 바탕으로 1954년 문교부 시교육미공보원의 후원과 미국교육사절단, 중앙교육연구소, 국립도서관이 아동의 독서 장려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독서주간 행사이다. 이 독서주간에는 미국의 아동 교재나 아동 도서를 전시하였다(동아일보 1954.11.18, 4).

이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업계를 중심으로 1958년 12월 17일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책 관련 행사라 할 수 있는 국내도서전시회를 개최하였다(동아일보 1958.11.26, 4). 전국도서전시회는 1984년 전국도서축제로 이름을 바꾸어 더욱 확장된 형태로 1984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특히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도서축제는 1985년부터 1년 2회로 확장되어, 책의 전시 이외에도 세미나, 백일장, 영상독서실과 독서상담실 등으로 더욱 다양화되었다(동아일보 1984.10.15, 8; 1985.4.29, 9).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1990년 서울도서전으로 이름을 바꾸어 다시 부활하였다(동아일보 1990.8.21, 10)²⁾. 대한출판문화협회 주도의 행사는 1995년 ‘서울국제도서전’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보다 복합적인 형태의 문화행사인 북페스티벌은 1995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그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0년도에

2) 1987년 책의 날 기념 도서축제로 그 형태는 계속 유지되어 왔었다.

들어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현재까지도 다양한 북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다.

반면 도서관에서 책을 주제로 한 행사는 북페어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았다. 최초 도서관의 행사는 1954년에 맞은 독서주간을 통해 도서관을 무료개방하고 소장한 자료를 전시하는 보조적 수준이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도한 행사 또한 강연회 및 웅변대회, 도서 및 도서관 사진전시회, 도서관의 밤축제, 한미도서관인 좌담회 등 개별적인 행사 위주로 진행되었다(경향신문 1971.4.10, 5). 그러나 2007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각각 분리되고, 2009년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 및 활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성을 띠게 됨에 따라, 도서관을 위시로 한 북페스티벌 또한 활성화되었다.

3) 북페스티벌 정책

북페스티벌은 그 대상이 ‘책’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도서관과의 연관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관련 정책 중에서도 북페스티벌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부분이다. 북페스티벌은 독서 행위의 사회적 공유이며 그 자체로 독서를 장려하고 홍보하는 매개가 된다. 따라서 북페스티벌 관련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민 대상의 대중독서운동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각국의 독서진흥정책 중 일반 시민 대상 정책 및 도서관 관련 정책의 핵심적인 항목을 추리면 다음 <표 1>과 같다(책과 교육연구소 2015, 65-168).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는 연방정부 혹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나 일부 자문 수준에 그친다. 정책 입안 등은 주정부 혹은 위원회 단위로 이루어지며, 특히 관

<표 1> 대중독서운동 관련 국외 독서진흥정책

	미국	영국	핀란드	프랑스	일본
책임	주정부 및 지자체 연방정부 재정지원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영국예술위원회	교육문화부	도서·독서국	문부과학성 생애학습 정책국
수행 주체	공공도서관	다분야 협력 (독서전문 시민단체, 프리랜서 기획자, 복권 사업, 기업, 국영 방송, 유명인사 등)	시설적: 국가 내용적: 사서교사	독서생태계 전반	공공도서관 지자체 학교
방향성	독서의 즐거움: 함께 읽기	정보접근의 평등권 비독자 유입	평등한 접근 핀란드 문학보호	독서생태계 활성화	활자이탈방지 평등한 독서문화
사례	한 도시 한 책 도서관을 사랑해 (도서관 홍보)	유명 인사 홍보 책은 내 가방(독립서점 활성화) 도시책(북 벤치 관광진흥 프로젝트)	작가 만남 독서센터	독서축제	독서주간 독서마을

런 프로그램이나 운동의 기획 및 실행 등의 권한을 공공도서관 혹은 현장일선의 사서, 프리랜서 기획자, 시민단체 등에게 부여함으로써 자율성을 높였다. 즉 대중독서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로서 개인과 민간을 적극 포섭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지원 영역을 전통적인 공적 영역과 더불어 저자나 출판사, 서점 등의 독서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영역까지 확장하였다.

핀란드는 1990년대에 공공도서관의 관리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보다 자율적이다. 특히 기획 및 운영 등 프로그램 실무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핀란드의 도서관은 삶의 다양한 부분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폭넓은 일상성을 띠었기 때문에, 대중독서운동 또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05년 제정된 ‘문자·화자문화 진흥법안’을 바탕으로 젊은 층의 문해력을 배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10년 ‘국민 독서의 해’ 등을 지정하는 등 독서의 생활화를 장려하였다. 특히 2011년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의 ‘국민독서 추진에 관한 협력자 회의’ 보고서에서 ‘공독(共讀)’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서의 사회적 확

장을 추구하였다.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독서주간’ 등의 제정 및 활동이다. 일본은 매년 봄과 가을에 ‘어린이 독서주간’, ‘독서주간’을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주최한다. 1947년부터 ‘독서주간 실행위원회’가 결성되어 시작한 독서주간은 출판업계나 도서관, 학교 관련 협회 등이 모여 설립한 ‘독서추진운동협의회’가 총괄한다.

일본의 ‘독서주간’ 정책은 한국의 ‘독서의 달 행사’ 정책과 유사하다. 2007년 독자적으로 분리된 독서문화진흥법에서 ‘독서의 달 행사’ 등에 의무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사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켰다.³⁾ 특히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2009년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3년까지 추진되면서 대중독서운동에 대한 정책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비록 한계가 있으나 사회 전반

3) 2013년 3월 23일 공포된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2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독서의 달) 2항에서는 독서의 달 행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한다.

에 독서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현재 상황에서 독서율의 감소를 반등시킬 요인이 부족하고, 다양한 매체의 출현으로 인해 책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다는 시대적 방향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서운동의 전개로 독서의 생활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응방향에 따라 수립된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대중독서운동에 관련된 추진과제를 추려보면 다음 <표 2>와 같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10-40).

<표 2>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차) 대중독서운동 추진과제

추진 전략	중점추진 과제	추진 내용
책읽는 즐거움 확산	국민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의 달(9월) 계기 전국 단위 독서운동 전개 계기별 독서운동 전개 「책 선물하기」 문화 확산 참여형 독서운동 확산
	지역 풀뿌리 독서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자생적 풀뿌리 독서운동 전개 지역별 대표 독서프로그램 활성화 「독서박람회」 개최 문학작가 파견을 통한 독서멘토 활성화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국민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목표 하의 추진전략 중에서도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이라는 항목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독서행위를 홍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독서운동을 전개할 것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특히 법적으로 규정된 독서의 달 행사를 다시 한 번 추진 내용으로 명문화시켜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 기관에서 북페스티벌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35-36).

종합하면, 국외의 경우 독서진흥에 대한 권

한이 주로 지방자치단체 혹은 단일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대중독서운동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으로 연관되거나, 도서관 및 독서 행위가 일상성을 띠고 있어 도시 전체 규모에서 함께 참여하는 일상 속의 캠페인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독서진흥 그 자체나 그로 인해 촉발되는 문해력 향상 등을 목표로 삼은 중앙정부의 법률 제정을 그 근거로 하여 대중독서운동이 추진된다. 그 결과 독서주간이나 독서의 달 행사를 명문화하고 이를 핵심으로 한 독서운동이 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한국은 ‘독서주간’이라는 기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막론하고 다양한 외부적 요소들과의 결합을 통해 독서행사 및 운동을 상시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북페스티벌은 도서관이나 개별 기획자 등이 주체가 아니라, 범국가적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축제의 유지가능성에서의 장점과 축제로서의 본질이 상호 충돌될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Ⅲ. 북페스티벌 사례

1. 국내 북페스티벌

1)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Seoul Wowbook Festival)은 홍대라는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기반⁴⁾으로 한 ‘도시형 공동체 축제’와 도시 공동체 안의 출판사와 시민들이 연대 및 참여하는

4) 홍대가 위치해있는 서울 마포구는 서교동과 합정동을 중심으로 4,197개의 출판사가 밀집해있으며(서울시정보소통광장 2016.02.19.),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자생적으로 모인 집합적인 특징적인 장소이다.

기반인 ‘자발적·참여형 네트워크 축제’, 일반적인 도서전이 아닌 ‘책 문화’에 중심을 둔 축제이다(경향신문, 2016/09/09, <https://goo.gl/ttSwiL>).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은 책이라는 가장 근원적 콘텐츠를 가지고 저자, 책 관련 전문가, 아티스트 등의 네트워크 및 출판인들이 함께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참여의 창구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책과 예술장르가 융합된 ‘와우북상상만찬’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적인 접근(엄해진 2011, 423-424)은 기존의 고급문화로 꼽히던 ‘예술’을 책이라는 콘텐츠와 결합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소외를 줄이는 문화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책과 다른 매체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홍대’라는 문화적 공간을 향유하는 사람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된다는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서울 북 페스티벌

서울 북 페스티벌(Seoul Book Festival)은 2013년 ‘도서관의 축제’로 변화를 시도한 이후, 축제 참여기관 중 도서관의 참여가 88%(노컷TV, 2014/11/28, <http://www.nocutnews.co.kr/news/4333671>)에 이르며, ‘사서토크쇼’ 등 사서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2016년에는 ‘서울형 책축제’의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 ‘주제가 있는 축제’로 부상하기 위해 100여개의 독서 동아리의 참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축제의 특정 주제 관련 도서관을 중심으로 별도의 ‘축제도서관’이라는 부스를 구성함으로써 축제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서울도서관, 2016/09/10, <http://lib.seoul.go.kr/bfhistory>).

[s://lib.seoul.go.kr/bfhistory](http://lib.seoul.go.kr/bfhistory)).

서울 북 페스티벌은 기존의 축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도서관들에게 사서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도서관’에서 일한다는 소속감을 부여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축제를 직접 기획함으로써 축제가 함의하는 ‘독서 가치’를 직접 내재화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강동 북 페스티벌

강동 북 페스티벌(Gangdong Book Festival)은 서울 강동구 내 4개 구립도서관(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강일도서관, 암사도서관)이 주관하는 북페스티벌로, 2010년 시작되어 매년 5월에 열리며⁵⁾, 국내 최초로 공공도서관이 주관한 북페스티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강동 북 페스티벌이 지향하는 가치는 시대정신의 지속성(Continuity), 주민과의 협력(Cooperation), 다양한 장르와 융합(Convergence)된 책의 재창조, 과거와 현재, 도서관과 주민, 책과 사람의 소통(Communication)이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강동 북 페스티벌은 구립도서관 사서들과 주민들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며, 주민 및 지역 커뮤니티, 작은도서관, 협동조합 등이 함께 준비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강동북페스티벌, 2016/09/16, <http://www.gdbookfest.or.kr/>; 뉴스와이어, 2015/05/07,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1014>).

강동 북 페스티벌은 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주를 이루며, 이 과정에서 강동구민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켜 ‘주민’만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특성을 지닌다.

5) 2010년에는 9월에 개최되었다.

<표 3> 국내 북페스티벌 사례 개요

축제명	시작	주최	주관	특징	문화적 가치
서울와우북 페스티벌	2005	2005-2007: 출판인회의 2008-: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지역문화 정체성 기반 축제 책과 예술장르 조합	새로운 문화 창출 문화적 격차 해소 홍대인들의 공감대형성
서울북 페스티벌	2008	2008: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2009-2011: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2012-: 서울도서관	(매번 바뀜)	시민참여형 북페스티벌	사서들의 공감대 형성 시민들의 '독서가치' 직접적인 내재화
강동북 페스티벌	2010	강동구도서관리공단	강동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최초로 북페스티벌 주관	강동구민의 커뮤니티강화
파주 북소리	2011	경기도와 파주시, 파주북소리조직위원회	파주북소리조직위원회 출판도시문화재단	파주출판도시 지역정체성 기반 다수의 국제프로그램	독특한 독서문화 형성 새로운 콘텐츠 부각
삼례북 페스티벌	2000	2005-2007 영월군청 2013- 완주군청	책박물관 (책마을 문화센터)	학생 대상 고서를 다루는 북페스티벌	문화재생성 문화 융합적 접근
제주 책축제	20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중등국어교육연구회 제주초등국어교과교육연구회	학생들이 주 대상 도내 학교, 교과연구회의 부스 참여 국내 최초 도교육청 주최	독서생활의 준거 마련

4) 파주 북소리

파주 북소리(Paju Booksori)는 ‘파주출판도시’라는 세계유일의 출판문화클러스터⁶⁾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북페스티벌이다. 파주 북소리는 파주출판도시의 지식인, 문인, 예술인, 건축가 등의 다양한 지적자원 네트워크와 문화콘텐츠의 집약을 기반으로 독자·저자·출판인이 교육자·도서관인·서점인·기업인·문화 정책자들과 함께 펼치는 지식·예술문화축제이자 파트너십 축제로 기획되었다. ‘파주북어워드’, ‘스토리텔링아시아’,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등 국제행사 및 프로그램이 국내 타 북페스티벌에 비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출판도시 내의 출판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는 ‘지식난장’을 통해 파주출판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파주북소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파주북소리, 2016/09/16, <http://www.pajubooksor>

6) 약 8,500여명의 출판인들이 종사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4).

i.org). 파주 북소리는 이러한 국제프로그램과 출판사 주도 프로그램을 통해 출판의 국제적인 흐름에 편승함과 동시에 출판도시로서 파주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독서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5) 삼례 북 페스티벌

삼례 북 페스티벌(Samnye Book Festival)은 2000년부터 책박물관에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북페스티벌로, 2010년 영월박물관이 폐관하고 완주로 이전하여 완주책박물관에서 다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삼례문화예술촌, 2016/09/10, <https://goo.gl/WpEUG4>). 현재 위치하고 있는 완주책박물관은 본래 일제강점기에 쌀 수탈을 위해 건립되었던 양곡창고로,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역사로 인정하고 고서들을 보관하는 ‘책박물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활용하고 있다(독서신문 책과삶 2014/10/01, <http://www.bookand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

삼례 북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색은 책박 물관이 삼례예술촌 안에 위치하면서 ‘비주얼미디어아트미술관’, ‘디자인뮤지엄’, ‘김상림 목공소’, ‘책공방북아트센터’를 통한 융합적인 문화적 접근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서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의 구축과 강연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잊혀져가는 책들을 다시 살린다는 점과 역사적 공간에 축제라는 활동을 통해 또 다른 문화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의 재생성을 지원한다.

6) 제주 책 축제

제주 책 축제(Jeju Book Festival)는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북페스티벌로, 국내에서 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최초의 북페스티벌이다. 주로 ‘독서교육’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으며, ‘10대들을 위한 인문학 교실’ 등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의 독서의 즐거움을 찾아 독서 생활화를 이룰 수 있다.

제주 책 축제는 학교와 연계하여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독서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 독서동아리 및 도서관에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게 하여 독특한 또래 독서문화를 형성하였다. 또한, 제주방언과 관련된 부스를 운영하는 등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시사점도 지닌다.

2. 국외 북페스티벌

1) 미국의회도서관 국제 북페스티벌

미국의회도서관 국제 북페스티벌(Library of Congress National Book Festival)은 미국의회도서관에서 2001년부터 매년 초가을

이나 늦여름에 개최되는 북페스티벌이다. 2001년 당시 영부인이자 사서 출신이었던 로라 부시(Laura Bush)의 제안으로 시작된 축제로, 모든 문학과 문맹퇴치를 위한 도서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수용하는 모든 종류의 스토리텔링 매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되었다(The BLADE, 2011/08/08, <https://goo.gl/yEgpty>).

특히, ‘Family-Friendly Activities’는 가족 단위로 참가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의 독서 교육 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교육의 주체가 ‘가족’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독서 습관의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집단의 단위를 하나의 독서 인프라로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독서교육의 효과를 발생시켜 자연스러운 독서습관의 형성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Sponsors&Supporters’를 운영하여 개인 혹은 단체의 북페스티벌 후원을 홍보함으로써 ‘기업-축제’, ‘축제-지역민’ 간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있다.

2) 에든버러 국제 북페스티벌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에든버러 국제 북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은 1983년 시작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최고의 예술축제로 2016년에는 45개국 80여명의 저자들과 만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모든 수익은 북페스티벌 운영에 사용된다. 운영금은 독립적인 도서 판매전의 수익금과 후원 및 협찬으로 이루어진다(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 2016/09/10, <https://www.edbookfest.co.uk/>).

이 축제의 중요한 특징은 매년 전 세계의 작가들이 모여 인지도 높은 논의와 토론을 하면서, 관객과 작가들이 만나 세계에서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특별한 포럼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식 교류의 장으로서 서로간의 문화가 만나는 접점을 마련하여 더욱 발전해나갈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의의를 지닌다.

3) 애들레이드 작가 주간

호주 남북부에서 매년 3월에 열리는 애들레이드 작가 주간(Adelaide Writers' Week)은 1960년부터 시작된 북페스티벌로, '애들레이드 예술 축제(Adelaide Festivals of Arts)'의 한 부분이다(Adelaide Festival, 2016/09/09, <http://www.adelaidefestival.com.au/>).

작가와 독자, 그리고 출판사를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며, 1992년에는 책뿐만 아니라 세계 음악과 미술, 무용을 축제의 소재로 겸하게 되면서 애들레이드 예술축제로 발전하였다(State Library, 2016/09/12, <http://www.samemory.sa.gov.au/site/page.cfm?u=967&c=2408;Ommundsen 2009, 20>). 애들레이드 작가 주간은 많은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큰 축제의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명실상부한 국제 축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축제 기간에는 많은 외부 참가자의 유입을 통

해 지역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4) 첼튼엄 문학축제

첼튼엄 문학축제(Cheltenham Literature Festival)는 첼튼엄 축제의 일부분으로 1949년 영국에서 시작된 최초의 북페스티벌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행사 중의 하나이다. 매년 10월 경 펼쳐지는 축제에는 작가, 배우, 정치인, 시인, 사회적 저명인사 등이 축제에 참여하여 교육워크숍, 토론,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작가와와의 만남을 통해 독자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더불어 독자는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발전시킬 기회를 얻는다. 또한 큰 축제의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술적 요소들을 문화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국내·외 사례분석 시사점

국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북페스티벌의 문화적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의 북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표 4> 국외 북페스티벌 사례 개요

축제명	시작	주최	주관	특징	문화적 가치
미국의회도서관 북페스티벌	2001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미국영부인이 명예의장으로 활동	가족 인프라를 통한 문화의 지속성 강화 기부 및 자선을 통한 사회 통합적인 기제
에든버러 국제 북페스티벌	1983	The City of Edinburgh Council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Adelaide Festival Corporation	국제적인 작가 포럼	작가&독자간의 문화교류
애들레이드 작가 주간	1960	Adelaide City Council	Adelaide Festival Corporation	'Adelaide Festival of Art' 과 같이 진행	복합적인 문화 경험
첼튼엄 리터러리 페스티벌	1949	Arts Council England	The Times&Sunday Times	최초의 북페스티벌 프로그램마다 비용지불	복합적인 문화 경험

에서 주취하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참여가 북페스티벌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서 활성화를 위해 ‘일상생활’과 ‘학교’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였다.

<표 5> 국내·외 북페스티벌 비교

구분	국내	국외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작가와와의 만남
공동체	지역민 중심	개인독자 중심
문화융합	0	0
독서행동준거	학교, 일상생활	가족, 개인
축제형태	지역별 주제축제 (캠페인)	국제축제의 일부분 (축제)
문화적기능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 및 문화재생 새로운 콘텐츠 창조 참여를 통한 지역내 부구성원 결속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자 개인의 발전 후원을 통한 기업-지역-독자 간의 결속 문화 민주화 지원
문화적기능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문화 융합적인 경험 지적 호기심의 충족 독서 문화의 확산 	

둘째, 국내의 북페스티벌은 책과 다른 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 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과 파주 북소리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는 모습으로,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이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축제의 소재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책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셋째, 국내 북페스티벌은 축제를 통해 ‘잊혀가는 문화와 역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삼례 북페스티벌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묻어있는 장소와 ‘고서’라는 소재를 북페스티벌의 소재로 삼음으로써 문화와 역사를 재생시키고 있으며, 제주 책 축제의 경우에는 ‘제주방언’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제주 고유의 문화를 이어나가고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외 북페스티벌 사례에서 확인한 문화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 북페스티벌은 ‘가족’을 중심으로 독서 인프라를 구성하여 독서생활습관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독서문화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둘째, 국외 북페스티벌에서는 영리·비영리 단체를 통해 북페스티벌의 후원 및 지원을 장려함으로써 유관단체 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미국의회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을 물질적·정신적으로 후원하는 집단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에든버러 북페스티벌에서는 자체적인 수익체제를 후원 및 협찬을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와의 결속력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국외 북페스티벌은 독자로 하여금 독서 행위를 유희화하여 독서 흥미를 고취시켜 ‘자아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부스 중심의 운영보다는 ‘작가’ 중심의 프로그램 및 강연의 운영을 통한 독자와 작가의 만남을 중점으로 두고 있었다. 이는 독자 개인의 독서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복합적인 문화 축제의 부분으로 ‘복합적인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에든버러 작가 주간이나 쉐튼엄 문학축제의 경우에는 모 축제인 예술축제의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책’뿐만이 아니라 ‘음악’, ‘무용’, ‘미술’ 등의 복합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각 북페스티벌이 가지는 문화적 기능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다양한 문화를 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점과 결국 지적 호기심의 충족에서 기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독서문화의 확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IV. 북페스티벌의 문화적 가치

북페스티벌이 문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가 가지는 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다. 문화는 그 사회의 생활양식이자 상징체제로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사회의 재생산이다. 따라서 북페스티벌 역시 사회의 재생산 기능을 가질 때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문화를 이루어내는 주체는 특정한 집단이지만 일단 만들어진 문화는 그것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면서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사고와 행위의 집적 결과로 문화를 만들어 내지만 만들어진 문화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로 개인의 욕구의 충족성이다. 개개인은 문화를 통해 스스로가 특정 집단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속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해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사회화 기능이다. 사회화란 개인의 특정 사회 가치를 내재화 하는 과정이다. 개인은 문화를 통해 사회 일원으로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역할과 지위를 자각하게 되고, 그로부터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셋째, 행동의 준거를 제시한다. 사회 구성원은 문화를 통해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문화적 준거는 개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지 혹은 제재를 가한다. 이로써 사회가 유지되는 분명한 틀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사회변동성이다. 문화의 변동이 사회변동의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낸다(박진규, 정상철 2005, 24-25). 이와 같이 문화가 가지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가치는 북페스티벌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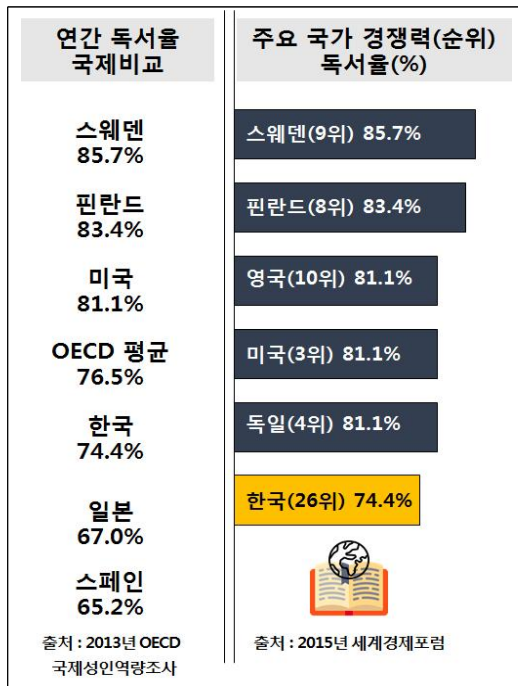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선진화와 함께, 문화적 선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화는

경제 지표의 향상 등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고급예술과 대중문화의 전반적인 향상, 국민적 교양의 향상,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문화적 마인드의 자연스러운 보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김만수 2010, 23).

이러한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화의 산물은 책, 즉 독서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삶에 필요한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독서는 인간이 정보를 얻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수단이다. 독서를 통해 인간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학문적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의 생산과 활용의 근본이 되는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고도의 지적능력을 얻게 해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문명의 발전과 문화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다.

과거 농경사회 및 산업사회는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앨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주창하였듯이, 현대 사회의 국력의 개념은 지식과 정보에 있으며, 지식과 정보를 소유한 사회가 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세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2013년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따른 국제 연간 독서율 비교를 보면 한국의 경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독서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 경쟁력 상위 그룹인 스웨덴, 핀란드, 미국, 독일 등과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이 국민들의 독서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림 1> 연간 독서율과 국가 경쟁력 비교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독서가 국가경쟁력 및 문화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의 인식으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하게 되었으며, 정부차원의 법률 제정에 까지 이르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독서관련 문화행사들이 개최되게 되었으며, 북페스티벌 역시 이와 함께 하나의 문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북페스티벌을 통한 독서문화의 활성화는 정치, 경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였으나, 독서문화에 있어 여전히 미진한 한국의 현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한국의 독서문화의 경우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독서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낮다. 독서의 경우 매우 정적이며 많은 시간을 요하는 활동으로 자기개발에 있어서도 현대와 같이 빠른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활동이 아닐 수 있다. 때문에 독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독서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독서를 정적 영역에서 동적 영역으로의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자유로움과 일탈성을 기반으로 한 축제는 독서에 대한 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독서문화를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페스티벌은 독서의 정적 이미지를 축제의 동적 이미지와 일탈성을 기반으로 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문화의 한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지는 북페스티벌의 문화적 가치는 공동체의 성숙과 사회통합의 기능이다. 사회 속에서 독서문화는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 사회 내에 조성될 수 있는 보편적인 ‘풍토’의 관점에서 독서문화는 가장 뚜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북페스티벌은 독서문화를 반영하는 독서문화의 표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축제가 문화의 표현양식임과 동시에 지향점이라는 이중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축제의 주제는 문화와 같은 뿌리를 공유하게 된다. 즉 북페스티벌은 독서문화의 표현형이자 시발점으로 규정된다. 책과 독서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북페스티벌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들을 가진다.

북페스티벌이 가진 문화적 가치의 핵심은 주제의 보편성에 있다. 북페스티벌의 주제는 일반적인 축제담론에서 제시되는 주제, 즉 지역성이나 콘텐츠의 성질을 띠고 있지 않다. 책과 독서는 하나의 문화체계에 속한 특징이 아닌 인간사회 보편에서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책과 독서의 보편성은 공공성(公共性)과 필연적으로 연관을 가진다. 이러한 보편성은 특히 국내 북페스티벌에서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연관되어있다는 데에서 찾

을 수 있다. 따라서 북페스티벌은 정책적인 기반에서든 현상적인 기반에서든 공통적으로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보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캠페인’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캠페인과 본질적인 차이점은, 캠페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과 달리 축제는 표현과 표출을 기반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류정아(2013)는 축제를 연행이론의 관점에서 “각자의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을 하는 다양한 개인들이 특정한 시공간에서 이뤄지는 말과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는 행위(류정아 2013, xx)”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북페스티벌은 ‘캠페인’의 성향을 띠고 있을지언정 그 본질은 축제가 가진 상호표현의 공유에 두고 있다. 일견 모순되는 이 내용은 북페스티벌의 주제를 통해 재해석될 수 있다. 축제가 인간 본질의 원시성을 ‘표출’하는데 우선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 범주 또한 명확한 반면 북페스티벌의 주제는 ‘인간 본연’이 아닌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서의 소산인 책과 독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북페스티벌의 주제는 책, 즉 구조화된 지적 체계의 이해와 공유이다.

이러한 지적 체계는 결국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며, 지식은 인간이 인식하는 외부세계이다. 따라서 북페스티벌은 언어와 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습득했던 ‘세계’의 존재를 상호만남을 통해 표출하고 그 의미를 새로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페스티벌은 보편성을 가진다. 북페스티벌의 주제이자 목적은 책을 매개로 한, 혹은 그를 통해 쌓아올린 지적 체계의 공유를 통한 상호 표현의 내면화이다.

축제가 그러하듯 북페스티벌 또한 독서 행위의 집단적 공유를 표현함과 동시에 그 자체를 회구한다. 독서 행위의 집단적 공유, 즉 지

적 체계의 공유와 상호 표현의 내면화란 공감과 이해의 과정이다. 서로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은 공동체의 형성과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북페스티벌의 문화적 가치는 여기에 있다. 합의되고 구조화된 지적 체계를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그 자체를 실체화하고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를 사회 전반에 내재화시키는 것이다. 북페스티벌이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향한 캠페인의 성향을 띠는 이유 또한 그 문화적 가치가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한 시민성의 함양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페스티벌은 가장 ‘사회적’인 축제이다. 북페스티벌은 개별 주체로서의 시민, 즉 사회화된 인간을 전제하고, 그 체계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응당 그래야만 한다고 믿어왔던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 책 속에서 피상적으로 부유하던 언어들을 실체화시킨다. 그 형태가 서양에서 추구하는 작가나 작품에 관한 개별적 접근이든, 한국에서처럼 체험부스와 도서전 등 중심의 매체적 보편성의 표출이든, 북페스티벌은 활자 뒤에 숨어있던 본질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 자체로 새로운 경험을 탄생시키는 매개가 된다. 그리고 북페스티벌이 표층적으로 표방하는 독서문화가 일상적으로 녹아들어 지적 체계의 개방적이고 격의 없는 공유가 보편화됨으로써 ‘축제가 일상화’되면 공동체의 성숙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문화란 교육, 여가, 축제들과 같은 생활방식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표현양식은 사회 구

성원 사이에 습득, 공유, 전달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사회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독서문화의 한 측면인 북페스티벌은 이러한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독서문화진흥 정책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문적 관심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북페스티벌이 문화의 핵심가치인 정체성 형성 및 공동체성 확립, 상호이해의 증진 등과 관련하여 가지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 재조명해 보고자하였다.

북페스티벌은 역사적 공간에 기반을 두고 문화재생이라는 문화적 가치와 북페스티벌의 참여를 통한 지역 내부구성원의 결속 강화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역 중심의 독서생활습관 및 인프라 구성을 통해 자연스러운 독서문화의 확산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북페스티벌에 대한 대명제 속에서 북페스티벌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페스티벌은 축제의 일상화를 통해 삶의 보편성 회복과 공동체의 성숙이라는 사회통합 기능을 가진다. 즉 ‘책’과 ‘독서’라는 주제의 보편성은 일반적인 지역성을 넘어 하나의 문화체계 속에서의 특성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행위에 대한 좌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삶의 보편성을 회복을 통해 공동체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독서문화 확산 및 독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는 사회적 성격의 변

화라는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에서는 문화콘텐츠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의 발로가 책, 즉 독서임을 볼 때, 북페스티벌은 책에 대한 유희적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독서문화 확산 및 독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의 개념, 역사, 정책, 사례조사 등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북페스티벌의 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북페스티벌이 가지는 실증적인 가치를 도출하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북페스티벌의 효용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므로 북페스티벌의 문화적 가치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동구청, 2015, “문화체험>강동북페스티벌,” <http://www.gangdong.go.kr/site/contents/culture/2015/html03/index3.html>, 2016/09/10.
- 강동북페스티벌, 2016, “강동북페스티벌 홈페이지,” <http://www.gdbookfest.or.kr/>, 2016/09/16.
- 경향신문, 1971, “圖書館 무료개방 강연·옹변대회도.” 『경향신문』(4월 10일): 5.
- 국가통계포털, 2014, “경기도기본통계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업 현황 (산업세분류별),” <https://goo.gl/pVkq9F>, 2016/09/10.
- 권혁선, 2012, “지방공기업이 주관하는 최초 최대 최고의 북페스티벌 강동 북페스티벌!”,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8권 제1호, pp. 131-140
- 김창연, 2011, “도시축제의 장소특성에 따른 공간유형 및 네트워크 구축 개념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7권 11호, pp. 61-72.
- 남덕현, 2004, “문화이론을 통해 본 축제의 의미.”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축제와 문화적 본질』,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3-26.
- 대한출판문화협회, 2008, “2008 서울북페스티벌 개최 10.10(금)~12(일),” <https://goo.gl/d8iCgo>, 2016/09/16.
- 동아일보, 1954, “韓國 첫 圖書週間に 붙임.” 『동아일보』(11월 18일): 4.
- 동아일보, 1958, “國內圖書展示會 12月十七日부터.” 『동아일보』(11월 26일): 4.
- 동아일보, 1990, “「서울圖書展」 5년만에 부활.” 『동아일보』(8월 21일): 10.
- 류정아, 2013, 『축제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매일경제, 1985, “冊·독자가 만나는 봄圖書 축제.” 『매일경제』(4월 29일): 9.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2014~2018)』, 서울:동부처, 11-1371000-00054-2-13.
- 박진규·정철상, 2005, 『지역문화와 축제』, 서울: 글누림.
- 삼례문화예술촌, 2016, "완주책축제", <https://goo.gl/WpEUG4>, 2016/09/09.
- 서울국제도서전, 2016, “연도별 도서전,” <http://2016.sibf.or.kr/sibf2016/bookfair-history/>, 2016/08/26.
- 서울도서관, 2016,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seoul.go.kr/bfhistory>, 2016/09/10.
- 서울정보소통광장, 2016, “서울시 마포구 출판사 및 인쇄소 현황,” <http://data.seoul.go.kr/openinf/sheetview.jsp?infId=OA-113491>, 2016/09/16.
- 송미령, 2015, “응답하라 1990, 2015 강동북페스티벌 개최,” 『뉴스와이어』(5월 7일),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1014>, 2016/09/09.
- 안찬수, 2014, “국내외 북페스티벌의 현황과 전망.” 『국회도서관』, 제51권 9호, pp. 14-21.
- 엄혜진, 2011,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의 의의와 콘텐츠.”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9권 제1

- 호, pp. 423-424
- 와우책문화예술센터, 2016, “와우책문화예술센터 홈페이지.” <http://www.wowcenter.or.kr/>, 2016/09/10.
- 요한 호이징아(Johan Huizinga) 저, 김윤수 옮김, 1955, 『호모 루덴스』, 서울: 까치.
- 윤선자, 2008, 『축제의 문화사』. 파주: 한길사.
- 이재원, 2014, “[영상] 책 읽는 광장! 책 읽는 시민!, '2014 서울 북 페스티벌',” 『노컷뉴스』 (11월28일), <http://www.nocutnews.co.kr/news/4333671>, 2016/09/09.
- 임연철, 1984, “대규모 「圖書 전시회」 두곳서 열어.” 『동아일보』(10월 15일): 8.
- 조장래, 2005, “[책읽는 대한민국]IV-3.제1회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 『경향신문』(6월 30일), <https://goo.gl/ttSwIL>, 2016/09/09.
- 조찬식, 2013.,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2호, pp. 201-221.
- 조찬식, 2016, “북페스티벌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2호, pp. 135-149.
- 차혜원, 2014, “폐허의 변신... 문화 꽃 피운 책 박물관”, 『독서신문 책과 삶』 (10월 1일), <http://www.bookand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 2016/09/09.
- 책과 교육연구소, 2015, 『해외 주요국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사례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최문규, 2003, “축제의 일상화”와 “일상의 축제화” - 축제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축제와 문화』 pp. 111-140.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출판도시문화재단, 2014, “파주북소리 2014,” <https://goo.gl/p4qCHL>, 2016/09/10.
- 파주북소리, 2016, “파주북소리 홈페이지,” <http://www.pajubooksori.org>, 2016/09/16.

References

- Adelaide Festival, "Adelaide Festival Homepage," <http://www.adelaidefestival.com.au/>. Accessed September 9, 2016.
- Cheltenham Literature Festival. 2016. "Cheltenham Literature Festival", <https://goo.gl/UQCCI8>. Accessed September 2, 2016.
- Driscoll, Beth. 2015. "Sentiment Analysis and the Literary Festival Audience." *Continuum* 29: 861-813.
- 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 2016. "Edinburgh Book Festival News." <https://www.edbookfest.co.uk/>. Accessed September 10, 2016.
- Johanson, Katya and Robin Freeman. 2012. "The Reader as Audience: The Appeal of the Writers' Festival to the Contemporary Audience." *Journal of Media and Cultural Studies* 26 (2): 303-314.
- MacPherson, Karen. 2001. "First Lady to Open 1st National Book Festival." *The Toledo Blade*. August 8. <http://www.toledoblade.com/Politics/2001/09/08/First-Lady-to-open-1st-National-Book-Festival.html>.
- Meehan, Michael. 2005. "The Word Made Flesh: Festival, Carnality and Literary Consumption," *Text Special Issue*. <http://www.textjournal.com.au/speciss/issue4/meehan.htm>.
- Moeran, Brian. 2010. "The Book Fair as a Tournament of Values."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6: 138-154.
- National Book Festival. 2016. "National Book Festival Homepage." <http://www.loc.gov/bookfest/about/>. Accessed September 10, 2016.
- Ommundsen, Wenche. 2009. "Literary Festival and Cultural Consumption." *Australian Literary Studies* 24 (1): 19-34.
- State Library. 2016. "The Adelaide Festival of Arts 1960." <http://www.samemory.sa.gov.au/site/page.cfm?u=967&c=2408>. Accessed September 12, 2016.
- Stewart, Cori. 2009. "The Culture of Contemporary Writers' Festivals." Ph. D. Dis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Weber, Millicent. 2015. "Conceptualizing Audience Experience at the Literary Festival." *Continuum* 29: 84-96.
- Weidhaas, Peter. 2007. *A History of the Frankfurt Book Fair*. Toronto: Dundurn.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An Chan-Su. 2014. "Status and Prospects of Book Festival." *National Assembly Library* 51 (9): 14-21.
- Book and Life. 2014. <http://www.bookand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 Accessed September 9, 2016.
- Cho Chan-Sik. 2013. "A Study on the Public Reading Campaign: The Case of 'One Book, Seongbuk' Campaign in Seongbuk-Gu,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 (2): 201-221.
- . 2016. "A Study on the Book Festival: The Case of the 2015 Seongbuk-Gu Book Festival."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 (2): 135-149.
- Choi Moon-Gyoo. 2003. "'Making Festivals into Everyday Life' and 'Making Everyday Life into Festivals'." In *Festivals and Culture*, edited by Institute of European Society and Culture, 111-140.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Gangdong Book Festival. 2016. <http://www.gdbookfest.or.kr/>. Accessed September 16, 2016.
- Gangdong-Gu Office. 2015. <http://www.gangdong.go.kr/site/contents/culture/2015/html03/index3.htm>. Accessed September 10, 2016.
- Kim Chang-Eon. 2011. "A Study on Establishing the Concept of Network Structuralization and Festive Space Type from Place Characteristics in a City Festival."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n Planning and Design* 27 (11): 61-72.
-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2008. <https://goo.gl/XNPY1O>. Accessed September 16, 2016.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Center. 2014. <https://goo.gl/joMKfG>. Accessed September 10, 2016.
- Kwon Hyuk-Sun. 2012. "Gangdong Book Festival: The First, Biggest, and Best Book Festival Hosted by Local Public Enterprises." *Korean Journal of Local Public Enterprises* 8 (1): 131-140.
- Kyunghyang Shinmun*. 2005. <https://goo.gl/pJ5drL>. Accessed September 9, 2016.
- Nam Duk-Hyun. 2004. "The Meaning of Festival from Cultural Theories." In *Festivals and Cultural Nature*, edited by Institute of European Society and Culture, 3-26.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Newswire. 2015.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1014>. Accessed September 9, 2016.
- Nocutnews. 2014. <http://www.nocutnews.co.kr/news/4333671#csidxb4d89aa76c935af94c934dbaea84e40>. Accessed September 9, 2016.
- Paju Book City Foundation. 2014. <https://goo.gl/JTv9HC>. Accessed September 10, 2016.

- Paju Booksory. 2016. <http://www.pajubooksori.org>.
Accessed September 16, 2016.
- Park Jin-Kyu and Jung Chul-Sang. 2005.
Local Culture and Festivals. Seoul:
Geulnurim.
- Ryoo Jeung-Ah. 2013. *Theories of Festival*.
Seoul: Communicationbooks.
- Seoul Information Communication Square, 2016,
[http://data.seoul.go.kr/openinf/sheetview.jsp?
nfid=CA-11349](http://data.seoul.go.kr/openinf/sheetview.jsp?nfid=CA-11349). Accessed September 16,
2016.
-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16.
[http://2016,sibf.or.kr/sibf2016/bookfair-
history/](http://2016,sibf.or.kr/sibf2016/bookfair-history/). Accessed August 26, 2016.
- Seoul Metropolitan Library. 2016. [http
s://lib.seoul.go.kr/bfhistory](http://s://lib.seoul.go.kr/bfhistory). Accessed
September 10, 2016.
- Um Hye-Jin. 2011. "A Study on the Contents
of the Seoul WOW Book Festival."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9 (1):
423-424.
- Wow Book Culture and Art Center. 2016.
<http://www.wowcenter.or.kr/>.
Accessed September 10, 2016.
- Yun Sun-Ja. 2008. *Cultural History of
Festivals*. Paju: Hangilsa.